

하나님에 귀의하는듯한 종교평화선언

[기고] 총무원장 스님, 직권으로 폐기명령 해야

2011년 10월 16일 (일) 12:10:35

법응 스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이 풍전등화 같다는 밀려오는 두려움에서 좀 장문의 글을 씁니다.

결사추진본부 및 화쟁위원회(본부장 도법 스님)는 원로회의, 교구본사 및 직할교구, 중앙신도회를 비롯해서 종단의 조직을 순회하면서 '종교평화를 위한 불교인 선언'(이하 불교인선언문)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나 홍보와 절차적 의미를 배제키 어렵습니다.

종교평화선언문이 얼마나 교정 될지는 모르나 현 상태의 불교인선언문 초안을 내용적으로 볼 때는 불교계(조계종)가 하나님(神)에게 귀의하는 선언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비 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Nostra aetate)' 중 김남수 신부가 번역한 '힌두, 불교, 기타 종교'에 대한 내용의 전문을 소개합니다. 진하게 표시한 문장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고금을 통하여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는 사물의 변화와 인생의 역사 속에 현존하는 심오한 힘을 어느 정도 느껴 왔다. 때로는 **(1)최고의 신이나 아버지를 긍정하였다.** 이같은 느낌과 긍정은 그들의 생활에 종교적 깊은 뜻을 부여한다. **(2)종교**라는 것은 **관련문화의 발전을 따라 세밀한 개념과 세련된 어법으로 인생 문제에 해답을 주려고 애쓴다.**

예컨대 힌두교(인도교)에 있어서 사람들은 신의 비밀을 탐구하여 한없이 풍부한 신화와 깊은 철학의 시도로써 표현되는 동시에 인생고에서의 해탈을 찾아 수덕생활이나 깊은 관상이나 신뢰와 사랑으로 신에게로 도피하고 있다.

또 **(3)불교**에 있어서는 여러 학파에 따라 무상한 현세의 근본적 불안정성을 긍정하는 동시에 열심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완전한 해탈 상태에 이르든지 혹은 자신의 노력이나 위로부터의 도움에 의하여 **최고 조명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친다.** 그밖에 전세계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종교들도 교리와 생활규범과 성스러운 예식 등을 가르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의 마음이 느끼는 불안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그 길을 제시한다.

가톨릭교회는 이들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성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A)그들의 생활과 행동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규율과 교리도 거짓없는 존경으로 살펴본다.** 그것이 비록 가톨릭에서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과는 여러 면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해도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진리를 반영하는 일도 드물지는 않다.

(4)그리스도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시며"(요한 14,6) 그분 안에서 사람들이 종교 생활의 풍족함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과 화해시키셨음을**(2 고린 5,18-19)** 교회는 선포하고 있으며 또 반드시 선포해야 한다.

그러므로 **(5)교회**는 다른 종교의 신봉자들과 더불어 지혜와 사랑으로 서로 대화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그리스도교적 신앙과 생활을 증거하는 한편 그들 안에서 발견되는 정신적 내지 윤리적 선과 사회적 내지 문화적 가치를 긍정하고 지키며 발전시키기를 모든 자녀들에게 권하는 바이다.]



▲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구세주 그리스도상.(출처:위키백과)

- (1)의 문장은 '때로는' 이라는 양보성의 수식 있으나 문화가 상이해도 결국 하느님(神)을 긍정했다고 주장합니다.
- (2)의 문장은 종교의 필요성과 고귀성을 설명하나 결국 기독교를 긍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 (3)은 불교를 쪼개진 학파로 규정하고 "무상한 현세의 근본적 불안전성을 긍정" 이라 해서 현실정도를 부정하고 신의 국가만이 완전함을 의도하고 '위로부터의 도움'이라며 절대자를 긍정하는 종교로 은연중 설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4)는 성경을 인용해서 결국 '힌두, 불교, 기타 종교'를 기독교 안에 가두는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 (5)는 타 종교와의 대화가 결국 "그리스도교적 신앙과 생활을 증거"하는 신앙 활동임을 규정해서 '평신도'로 하여금 타 종교인과 서슴없는 교류로서 가톨릭의 열린 자세를 견지토록 했습니다.

살피건대 (A)문장에서 타종교를 '거짓 없이 존경한다'가 아니라 '거짓 없는 존경으로 살펴본다.'라 하는 등 철저히 주도 및 주관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이 스스로 벽을 허물은 양상을 취한 듯 하지만, 결국 그들의 우월성을 강조해서 가톨릭의 포교를 위한 전략적인 문장과 의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에 '비 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으로 인해

○가톨릭의 21 세기 선교방향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바, '우주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 인식화'에 성공 ○수많은 평신도들이 타 문화권, 해외선교에 참여하는 동기의 부여 ○비 가톨릭

그리스도교의 신자들을 '갈라진 형제들'이라 칭하며 일치 및 연합화에 성공 ○교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공포해서 타 문화권을 가톨릭으로 흡수하고 저항 및 거부감을 사라지게 한 효과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지 알아야 합니다.

요하게도 60년대 이후 불교나 가톨릭(성당)은 다 같다는 말이 유행해서 현재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성당에 가면 제사도 지내게 한다며 가톨릭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사라지는 동시에 호응도가 높아졌음은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조계종(화쟁위원회/결사추진본부)이 제아무리 타 종교계의 협력을 이끌어 내서 종교간 평화를 위한 대선언문이나 법률을 제정하는 가시적 효과를 창출 한다 해도 현 상태대로 간다면, 그 기조는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비 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과 신학적 종교다원주의의 교본인 '바아르 선언(Baar Statement)'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기독교계는 티끌만치도 손해 볼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화쟁위원회는 '불교인선언문'이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비 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과 신학적 종교다원주의의 교본인 '바아르 선언'과 내용적으로 그 궤를 같이한다는 본납의 공개주장에 대해 이론적으로 공개 반박해야만 합니다.

왜 조계종이 앞장서서 기독교계의 세계복음화 전략에 찬동하는 일을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단체적으로 최면이 걸리지 않고서야 발생할 수 없는 일이 현 총무원 청사 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듭 총무원장 스님을 모신자리에서 도법 스님과의 토론을 요청 합니다.

현 상태의 '불교인 선언문'이나 얼마 후 종교계가 유사한 선언문을 발표 시 그야말로 기독교계는 불교계(조계종)로부터 앉아서 항복문서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타 종교계가 조계종이 추진하는 대로 종교인 평화선언과 관련한 활동 등에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괘재'를 깊숙한 곳에 감추고 종교평화, 사회평화에 기여한다면서 담당하고 품위있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은밀하고도 자연스럽게 한국불교계가 소위 '열린 진리관이라는 열린 자세로서 신을 인정했다' 할 것이 자명합니다. 불교의 근간을 뒤 흔드는 현실이 닥치고 말 것입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현 '종교평화를 위한 불교인 선언'의 초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출발하라고 도법 스님에게 직권명령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과 진행이 제 33 대 집행부가 들어서고서부터 발생한 일들로서 어찌 이해해야 하는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기 몇 편의 글로서 '바아르 선언'에 대한 설명과 소위 '종교평화를 위한 불교인 선언'과 비교설명 했습니다. 거듭 바아르 선언은 문화와 표현만 다르지 신(神)말에 불교 등 모든 종교가 존재한다는 주장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물론 '21 세기 아쇼카 선언'도 그러하기에 문제입니다.

가톨릭의 '외교인을 위한 기도'를 소개합니다. 아래 기도문의 내용에서 보듯 그들은 '외교인' 즉 타 종교인들을 하느님에게 구원해 달라는 기도로서 즉 불자 등 '외교인'을 기독교인화 해달라는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교인을 위한 기도'



뭇나라 백성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온 세상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사랑 우리 위에 곳곳하셔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셔라.

알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 제 기도를 들어 주소서.
제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죄인의 죽음을 원치 않으시고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하느님, 비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교인을
구원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그릇된 생각과 허황된 행위를 끊어 버리고
천주의 백성이 되어 영광스러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가톨릭 기도서」, 79-80 쪽)

그들은 이러한 기도를 연속적으로 암송해서 불교인 등 타 종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마음의 자세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종교평화 선언을 준비하는 화쟁위원회의 관계자들은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조계종이 종교간 평화가 우리의 현실에서 정착되게 하려면 가톨릭의 '외교인을 위한 기도' 등 유사한 것들을
폐기하라고 주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타 종교인들은 불자들을 천주의 백성이 되라 기도하는데 '개종의
전법 포기'는 자멸을 재촉함이 아니고 무엇인지요?

당부하노니 화쟁위원회의 관계자들은

첫째,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비 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과 가톨릭 등 기독교계와 종교다원주의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를 당부합니다.

둘째, '바아르 선언'을 모르고 '종교평화를 위한 불교인 선언'을 했다면 무지이며, 알고서도 했다면 핵불의
자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열린 자세에서 '바아르 선언'과 기독교계의 전 국민의 복음화 전략에

대해 연구를 바랍니다.

셋째, 한국불교를 대표한다는 조계종의 현실과 승려들의 낯날을 냉철하게 진단 바랍니다. 걸출한 승려나 불교 학자를 찾을 수 없는 현실에 불교의 우월성을 주장함은 만용임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 봉은사 등 사찰의 법당에서 훼손하고 한 측에서는 고고한 척 사과하며 종교간 대화를 유도하고 품위있게 행동하는 그들은 분명 하나님(神)의 충실한 사도임을 알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독교계는 불교를 연구합니다. 신부가 불교의 석 박사 학위를 취득 합니다. 승려 중에 기독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그들의 현 동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불교기관이나 승려가 사실상 전무한 현실에 종단의 중진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섯째, 2013년 부산 벅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신학적 종교다원주의의 WCC 제 10차 총회가 불교 중심지인 부산과 경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냉철하게 분석바라며, 여기에 조계종이 열린 진리관을 선포하고 참여할 시 정체성을 잃고 조계종은 그들에게 흡수당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결사추진본부장인 도법 스님이야말로 열린 자세라면 순회 공청회를 할 것이 아니라 불교계의 분야별 전문직 승려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평화선언문 수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의 내용들을 고치는 작업을 해야 마땅합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측이 열린 진리관을 앞세워서 하나님(神) 앞으로 헤쳐모여 하는데 그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들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옵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조계종이 왜 이러한 기도에 부응하려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사회에서의 종교간 화해는 필요합니다. 조계종이 이를 앞장서서 해소하려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나 종단기구가 종헌에 대한 기본적 책임감과 승려로서 본분사를 우선적으로 영두하고 시야의 폭을 깊고 넓게 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 사부대중은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다원주의가 아니며, 포괄주의와 그 모양새만 다를 뿐 결과적으로 한국불교에 대한 그리스도교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원주의의 본래 의미와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과

그 위대한 가르침에

귀명의 자세로서 존경과 참회를 합니다.

서에서 온 큰 가르침, 이 땅에 내려

1천 7백여 년 간 면면하더니

작금에 이르러 조선시대의 정치적 억눌보다도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무, 불. 법. 승

//法應(불교사회정책연구소)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62>

불교포커스